

| 씬번호 | 위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#S1-1. 숲속 갈림길 | 듀토리얼 시작 |
| #S1-2 숲속 갈림길 (외눈 도깨비와 전투) | 듀토리얼 시작 |
| #S1-3. 숲속 갈림길 (전투 후 명월과 대화) | 듀토리얼 시작 |
| #S2. 마을 입구 | 시작지점 |
| #S3. 양반집 안 | 1지역 보스존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#S3-2 양반집 안 (전투 종료) | 1지역 보스존 |
| #S4 성채 | 2스테이지 시작지점 |
| #S5 성채 안 오니의 거쳐 | 2스테이지 보스존 |
| #S5-1 성채 안 오니의 거쳐 | 2스테이지 보스존 |

| 출력 조건 |
|-------|
| 바로 출력 |
| 바로 출력 |
| 바로 출력 |
| 바로 출력 |
| 바로 출력 |

바로 출력

바로 출력

바로 출력

바로 출력

| |
|---|
| <p>대사</p> <p>아랑: "여기 계셨군요 명월.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."</p> <p>명월: "아닙니다. 기다리는 동안 잡요들이 찾아와 심심하진 않았습시다."</p> <p>아랑: "요괴요? 이런 후미진 산길 까지 요괴가 나온다니..."</p> <p>명월: "백성들이 모두 피난길에 오르고 인적이 드물어지니 그런것 아닐까 싶습니다."</p> <p>근처에서 외눈도깨비가 튀어 나온다.</p> <p>아랑: "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군요. 몸도 풀겸 저 놈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"</p> <p>명월: "그럼 부탁드립니다"</p> <p>전투돌입</p> |
| <p>외눈도깨비의 앞</p> <p>도깨비불: "어우 명월은 언제나 차갑다니까~?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숨어있었네!"</p> <p>아랑: "..."</p> <p>도깨비불: " 아 알았어~ 알았다고~. 그럼 몸풀기나 도와줄태니 앞의 요괴나 상대해봐! "</p> <p>"마우스 좌클릭을 눌러서 공격해!"</p> <p>"마우스 우클릭을 눌러 요괴의 공격을 방어해!"</p> <p>"쉬프트 키를 눌러 적의 공격을 회피해!"</p> <p>"연을 모두 모았어! Q E R을 사용해 강력한 기술을 펼쳐봐!"</p> |
| <p>명월: "이제 저런 요괴 따위는 쉽게 퇴마(退魔) 하시는군요."</p> <p>명월: "착요갑사의 기술 연(蓮)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까지... 대주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."</p> <p>명월: " 슬슬 해가 지고 있으니 이번 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지요."</p> <p>명월: "얼마 전 일어난 전쟁을 통해 왜의 요괴들이 조선의 땅에 넘어왔습니다."</p> <p>아랑: "왜의 요괴들이요?"</p> <p>명월: "예. 이번 임무는 민가를 약탈하는 왜의 요괴 '오니'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사살하는 것으로 지역의 산성 또는 마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"</p> <p>명월: "저는 산성으로 먼저 가 동태를 살피고 있을 터이니 아랑님께서는 민가를 확인해 주십시오"</p> <p>아랑: "알겠습니다."</p> <p>스테이지 이동</p> |
| <p>스산한 분위기의 마을</p> <p>아랑:"마을이 너무 조용해"</p> <p>도깨비 불: "아무래도 이미 떠난 것 같은데? 이곳 저곳 부숴져있어."</p> <p>아랑: "...일단 마을을 둘러보자"</p> |
| <p>양반집에 들어간 후 누군가를 발견한다.</p> <p>텐구 : " 음? 아직도 마을에 인간이 남아 있었나? "</p> <p>도깨비불 : "아랑! 요기가 느껴져 저 놈 인간이 아니야!"</p> <p>아랑: "요괴라고? 오니는 아닌것 같은데... 이봐 오니가 어디있는지 알고있나? ."</p> <p>텐구: "아 퇴마사였다. 오니 대장은 이곳에 없다."</p> <p>텐구: "심심하던차에 잘됐군. 날 이기면 알려주지 한번 덤벼보게나"</p> <p>전투돌입</p> |

텐구: "이 땅에도 강자는 존재하는가."
텐구 : "승부에 대한 답을 알려주지. 오니 대장은 산의 성채에 있을것이다."
아랑: "성채... 서둘러야겠어"
스태이지 이동

아랑: " 명월님은 어디계신거지?"
아랑: "혹시 먼저 들어가신 것일까?"
도깨비불 : "기의 흔적을 봐선 이미 한바탕 한 것 같은데?"
아랑: "서둘러 들어가야겠어"

쓰러져있는 명월을 발견
도깨비불: "아랑! 저기!"
아랑: "명월님!!"
오니: "뭐야 저년의 동료인가?"
아랑: "무슨짓을 한거냐!"
오니: "아~ 오지에 혼자 있으려니 몸이 쭈서서 산책이나 나갔는데, 쥐새끼 하나가 숨어있더라고~.
그래서 뭐- 반만 죽여놔지"
아랑: "네놈...죽여주마."
전투돌입

오니: "쿨럭-쿨럭! 하아... 대단한 놈이구나."
아랑: "..."
오니: "크흐흐... 대답조차 하기 싫은것이냐?."
오니: "그래 기분이다. 정보를 주지,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."
아랑: "무슨말이지?"
오니 : "곧 슈텐 대장과 이바라키 대장이 이 곳을 요괴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백귀야행을 이끌고
올 것이다. 우리는 정찰병에 불과해."
아랑 "!!!"
오니: "철저히 준비하는게 좋을것이야. 크하하하!!!"
오니 사망
아랑: "... 이 소식을 서둘러 전달해야해"
두둥 하고 끝난다음 엔딩크레딧

| 시네마틱 |
|--------------------|
| 카메라가 명월을 들여다 보는 시점 |
| X |
| X |
| X |
| X |

x

카메라 명월 한번 보여주고 오니로 포커싱

종류

| |
|--|
| |
| |
| |